

평화실현을 위한 종교의 역할*

- 가톨릭의 수행을 중심으로 -

박 일 영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요 약〉

갈등과 분쟁이 점증하는 현대 사회 안에서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종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종교들이 지닌 평화 실현자로서의 역할을 알아보고, 그 방법으로서 수행에 대하여 천착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가톨릭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하여 가톨릭교회로 하여금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평화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해결방안을 찾도록 만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대 사회 안에서 평화의 실현을 이룩하기 위하여 가톨릭이 전통적으로 지녀온 수행방법이 가지는 역할과 의미를 천착한다.

공동체의 삶 속에서 문화의 보존과 사회적 조화의 전승이라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 가톨릭과 평화 실현이라는 역할을 관련지어 보면, 수행을 통하여 그러한 실천을 기대하게 되는 희망의 뿌리(根據)를 찾아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근거의 재발견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사회 안에서 문화전통을 재확인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종교평화교육의 틀을 제시하리라고 기대하게 된다.

가톨릭의 수행은 한 마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의 길을 따라 그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예수는 왜 그런 비참한 죽음을 자초하였고, 부활하였던가? 그것은 이 세상에 하느님의 참된 평화를 가져오려는 목적이었다. 새 천년기와 새로운 세기에 여러 분야에서 한 걸 같이 예견하는 강조점은 영성이다. 그러한 예측을 가톨릭교회에 대입시켜본다면 그것은 바로 현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평화의 실현을 위한 '사회영성'의 계발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과 세계의 가톨릭교회가 이러한 시기에 세계가 필요로 하는 참된 평화를 위하여 사회영성을 계발하는 수행에 박차를 가하게 될 때, 영성훈련을 통한 평화교육에도 즉각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 주제어 : 평화, 수행, 수덕, 사회영성, 가톨릭 평화교육

* 본 논문은 200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평화와 수행

현대는 한 지역에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는 특징을 갖는 시대이다. 소위 “종교백화점”¹⁾에서 각자의 취향에 따라 제각각 마음에 드는 종교생활의 품목(item)을 골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한 편으로 자유 의식이 한껏 고취되는가 하면, 다른 한 편으로는 대중매체에 의한 손쉬운 조작에 따른 우민화를 염려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한 편으로는 무제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 편에서는 한 끼의 식량을 해결하지 못하여 죽어나가는, 세계적 모순이 증대되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이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시대 조류 속에서 종교가 지닌 평화 실현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일은 중대한 과제의 하나이다.²⁾

오늘날의 세계는 냉전으로 대표되는 상극의 시대를 지나, 이제 상호협력과 대화를 요청하는 상생의 시대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다. 급격하게 변하는 종교인구의 비율 분포나 특정 지역의 폭발적인 종교인구의 증가 등은 현대 종교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감지하게 만든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종교 자체가 지니는 참된 평화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탐구하고자 하는 요청은 미룰 수 없는 일이다.³⁾

다종교를 전제로 하는 현대 종교의 현실 속에서 각자의 종교를 자신에 대한 배타적 보호 방책이나 제한적 울타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인간을 더 잘 그리고 깊이 알아듣는 배경으로 삼아야 한다는 종교학과 신학의 새로운 조류, 즉 ‘종교신학’의 방법론으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본고에서는 가늠해 본다.⁴⁾ 이론적이고 당위론적인 종교의 역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종교적 노력을 가톨릭의 수행(修行) 혹은—가톨릭의 고유용어를 따르자면—수덕(修德 asceticism)⁵⁾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우리는 종교와 평화의 관계에 대하여 새롭게 각성하게 되었다. 종교는 인류가 영위하고 있는 삶의 방식인 문화에 있어서 그 기반이 된다. 또한 특정 전통 종교는 특정 문화 전통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⁶⁾ 그러한 배경은 어느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1) Peter Berger, *La Religion dans la Conscience Moderne*, Paris, 1971, p.219.

2)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문명충돌의 위기와 종교』, 심포지엄 자료집(서울: 종로성당, 2001) 참조.

3) H. 쾨, 안명옥 역, 『세계윤리구상』(왜관: 분도출판사, 1993) 참조. 여기서 쾨는 “종교간 대화 없이 종교간 평화 없고, 종교간 평화 없이 국가간 평화가 없다”는 명제를 내세워서 종교들의 상호 이해와 열린 자세가 세계평화의 실현에 요체가 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4) 유정원, 『한스 쾨의 평화신학』, 『종교신학의 이해』, 신학총서 32(왜관: 분도출판사, 1996), 195-206쪽 참조.

5)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수덕’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김보록, 『영성신학에서의 수덕』, 『한국가톨릭대사전』(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5038-5042쪽; 김승혜 외,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수행』(바오로딸, 2005), 36쪽.

6) 윤이흠, 『세계문화사의 맥락에 비추어 본 한국의 종교와 문화』, 『종교와 문화』 1(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5), 37-57쪽 참조.

가지로, 가톨릭으로 하여금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평화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지니게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톨릭이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가지는 역할과 의미를 천착하려고 한다.⁷⁾

평화의 원형(topia)은 유감스럽게도 늘 평화의 부재(u-topia)에 대한 대조경험(contrast experience)을 바탕으로 한다.⁸⁾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둘러싼 논쟁들, 그리고 그 배경으로 작용하는 유일 초강대국의 패권주의는 세계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UN]의 역할까지도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위협받는 시점에 와 있다.⁹⁾ 그것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이미 한반도의 경우에도 이른바 북핵(北核) 문제 등으로 불거지듯이 우리 자신의 안위와도 직결되어 있는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기상이변, 지구 온난화 등의 모습으로 이미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생태계의 파괴도 지구의 평화를 호시탐탐 위협하는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뜻있는 이들로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일일이 구체적 사례를 열거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만연한, 갈등과 대립만을 양산하는 이익집단들의 행태 그리고 그에 대한 당국의 반평화적 접근 방식들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시기에 특히 가톨릭이 지닌 갈등 해소와 중재의 담론을 (재)발견함으로써 평화 실현자(peace-maker)로서 가톨릭의 영성과 그 실천 방식으로서의 ‘수덕’을 천착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리하여 여러 종교가 공존하면서 남북 분단과 동서 분열의 시대를 사는 오늘의 한국인에게 가톨릭이 제시하는 평화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 실천의 길을 모색한다. 그렇게 모색되는 길이란 군사주의(militarism)가 남긴 분열과 갈등의 땅 위에서 조화와 화해를 찾아내기 위하여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디디는 평화 기행의 여정을 위한 길이다.¹⁰⁾

전환과 변혁의 시기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향해 “기쁨과 희망”을 준비하였다.¹¹⁾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한 이때에, 현대 사회 안에서 종교는 일견 사역화(私域化)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종교와 영성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기도 하다. 평화의 실현이라는 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종교적 과제와 관련하여 스위스의 종교

7) 위의 책, 237-240쪽 참조.

8) Richard Friedli, *Frieden Wagen. Ein Beitrag der Religionen zur Gewaltanalyse und zur Friedensarbeit*, Freiburg / Schweiz, 1981, p.17.

9) Cf.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New York, 1996.

10) Cf. Elbert W. Russell, “Christentum und Militarismus”, in: *Studien zur Friedensforschung*. Bd. 13, hg. v. W. Huber / G. Liedke, Stuttgart / München, 1974, pp.21-33.

11) 『기쁨과 희망.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현장』,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개정판: 2002)이하: 『사목현장』, 383쪽.

학자 프리들리는 이렇게 말한다.

“[평화 실현을 위한 종교의 역할] 이를 정치-사회적으로 응용하고 또 구체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 하는 문제는 마하트마 간디나 틱낫한, 혹은 한스 킹이 걸어난 삶을 보면 알 것이다. 이 세 명의 탁월한 인물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을 성인의 반열에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분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강한 끈기를 요하는 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할 따름이다. [중략] 내가 관여하고 있는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World Conference for Religion and Peace)에 대해 소개한 것도 단지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지를 보여주고자 함이었다. 누군가 이 ‘긴 호흡’을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하고 싶다.”¹²⁾

경직된 종교의 사상은 교조화된 독단에 흐를 위험을 안고 있다. 그것은 뒤이어 나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절대 진리 보유권’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지며, 당연한 논리적 결과로 개종의 강요와 종교[를 빙자한] 전쟁, 이른바 성전(聖戰 Jihad)이나 의전(義戰 bellum justum)의 이론적 근거로 작동하게 된다.¹³⁾ 진정한 평화란,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파괴하려는 힘에 대한 대립적 차원으로 나타난다. 일상사에서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경험들은 비(非)평화요 반(反)평화의 사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에 대한 대조경험으로서 평화를 유추하고, 행동 속의 희망으로 참된 평화를 찾아 나서게 된다.¹⁴⁾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지구 평화, 아니 인간 종족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오늘 인류의 모습을 “후기 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는 후기 자연(post-nature)의 파괴”이라고 명명하는 학자도 있다.¹⁵⁾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으로 대표되는 근대화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은 무엇이 되었든 용인된다는 “기술적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이 가지는 잔혹성과 야만성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21세기 문화와 영성이라는 빛의 시대에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¹⁶⁾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생태환경의 파괴 등 반 평화적 행태에 대한 반성과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 그것은 오늘날 자연에 대한 경외감의 회복을 중심적 과제

12) R. 프리들리, 『새로운 천년과 유럽에서의 평화 - 종교들의 역할』, 『새 천년과 평화: 종교의 역할』, 제3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2000. 6. 1), 20쪽.

13) 종교분쟁이나 종교전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러 종교들의 원리주의자 내지 근본주의자(fundamentalist)들이 여기에 속한다. 특정 종교가 무조건 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승리주의 내지 개선주의(triumphalism) 등도 이러한 노선에 속한다. 이들은 같은 종교의 테두리 내에서도 비폭력(non-violence)을 주창하는 평화주의(pacifism)를 내세우는 종파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리스도교의 경우에 무조건적 평화주의 노선을 택하는 종파들로는 재세례파, 유니테리언, 퀘이커 등을 꼽는다. Cf. Elbert W. Russell, 앞의 책, 33-55쪽: “Gegenwärtige Einstellungen von Christen zum Militarismus.”

14) R. 프리들리, 『현대의 선교. 선교인가 반선교인가』(성바오로출판사, 1989), 27-32쪽 참조.

15) 김열규, 『사만 유산의 발견. 동북아 사머니즘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사만 유산의 발견』, 심포지엄 자료집(한국프레스센터, 1998), 7쪽.

16) 박노자, 『파시즘의 뿌리는 너무나 깊다』, 『한겨레 21』 475(한겨레신문사, 2003. 9. 18), 113쪽 참조.

로 삼는 에코 센트리즘(eco-centrism)의 주장이기도 하다. 평화심성을 기르기 위한 평화교육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평화의 감수성이 개발되어야 한다. 감수성의 훈련은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만이 해결책이다. 인간 삶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문화의 핵심에는 종교가 자리 잡고 있다. 평화심성을 기르는 평화교육이 곧 종교 교육의 요체가 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평화는 전면적인 변화로서 혁명을 요구한다. 혁명적 조건에서라야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모순과 개인적인 어려움이 얹히고설킨 악순환의 고리를 부수려는 일면 단호하면서도 다른 일면 화해의 자세가 갖추어진 몸짓이라고 풀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단기적 실천이 아우러져야 한다. 전향적인 자세와 근본적 변화만이 정말로 평화로운 세상을 가져온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는 위험스러운 모험처럼 감행(敢行)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민중의 혁세(革世) 지향적 대망(待望)이 실현되는 그런 세상, 한국의 신종교들이 말하는 후천개벽의 세상,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를 고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I. 현대 가톨릭교회의 평화론

가톨릭교회가 선포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하느님의 나라이다.¹⁷⁾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는 정의, 진리, 사랑 및 자유라는 네 가지의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네 개의 기둥을 모아서 ‘평화’라고 이름 붙이는 집이 완성된다.¹⁸⁾ 부연하자면, 평화는 진리에 입각하고, 정의의 규준에 의하여 성립되고, 사랑으로 생기고 또 완성되며, 효과적인 자유에 의하여 실현된 질서를 말한다. 이와 같이 평화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총체적인 인간 구원을 뜻하는 내용이다. 예수 자신이 바로 그의 활동목표를 이러한 평화의 실현에 두었다. 즉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의 내용, 희망의 핵심이 바로 평화이다.¹⁹⁾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성경상의 평화는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개인의 안정과 안녕, 둘째, 집단이나 국가간의 일치와 화목, 셋째, 지상의 인간과 천상의 하느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치와 화해, 넷째, 인간의 종말론적 구원. 이렇게 보면, 성경의 평화관에서는 인간과 하느님, 현실적 차원과 초월적 차원을 입체적으로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17) 조규만, 『하느님 나라』(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5) 참조.

18) 교황 요한 23세, 정규만 역,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3), 부제: “진리, 정의, 사랑, 자유에 의거한 모든 국민의 평화에 대하여” 참조.

19) 박일영, 『한국의 종교와 현대의 선교』(가톨릭출판사, 2008), 258-259쪽 참조.

20) 오경환, 『성경과 교회의 평화관』, 『한반도 평화에 관한 그리스도교적 관점, 제44차 세계성체대회 심포지엄 자료집』(서울, 세계성체대회조직위원회, 1989), 2-3쪽 참조.

교황 요한 23세(재위: 1958-1963)는 쿠바의 미사일 위기로 촉발된 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을 우려하여『지상의 평화』(1963)라는 회칙을 반포하여, 정치공동체들 간의 상호관계와 세계 공동체의 평화 실현 책무를 강조하였다. 이 문헌에 따르면, 인류 전체가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서 갈망하는 것도 평화를 건설하는 일이다.²¹⁾ 이와 같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류의 갈망이 일치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같이 하느님의 모상(image of God)으로 창조되어²²⁾ 한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피부색, 언어 관습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한 점이 있으나, 그것은 하느님의 창조사업의 다양성을 드러내주는 것이지 서로의 이질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²³⁾ 오히려 그러한 다양성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일치하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일치는 참된 평화의 증진이라는 공통된 갈망을 낳게 하였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에서 채택된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1965)은 평화의 본질, 전쟁 회피, 국제 공동체의 건설 등에 대해서 심오하고 구체적인 이론을 전개하였다.²⁴⁾ 현대 세계의 평화와 국제 정의에 대해서 가장 힘주어 강조한 교황은 바오로 6세(재위: 1963-1978)였다. 바오로 6세는 1965년 유엔 총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하여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국제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황은『민족들의 발전 촉진에 관한 회칙』(1967)²⁵⁾에서 가톨릭교회가 세계 평화에 대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책임이 있는가를 천명하였다.

가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 평화는 정치를 통하여 힘과 이해관계의 균형으로만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참된 평화는 마음, 사랑의 활동으로써만 얻어진다. 현재까지 인류 역사의 흐름에 그렇게 많이 작용해온 이기적이고 호전적인 정신을 교정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일은 물론 쉽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 평화롭고 참으로 인간다운 역사를 향해서 ‘평화를 감행’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사목헌장』이 말하는 ‘평화의 본질’을 한 번 들여다보자.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만이 아니며, 오로지 적대 세력의 균형 유지로 전락될 수도 없고, 전체적 지배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또 정확히 말하자면, 평화는 ‘정의의 작품’(이사 32, 17참조)이다. 인간 사회의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질서의 열매, 또 언제나 더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행동으로 실천하여야 할 사회 질서의 열매가 바로 평화이다. 인류의 공동선은 그 근본 원리에서는 영원법의 지배를 받지만, 공동선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21) 교황 요한 23세, 앞의 책, 84쪽.

22) 구약성서 『창세기』 1,28.

23) 신약성서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3,28.

24) 『사목헌장』, 375-607쪽(특히 제5장: 571-601쪽). 이 헌장은 제5장 전체를 “평화 증진과 국제공동체” 문 제에 대하여 할애하고 있다.

25) 교황 바오로 6세, 김남수 역, 『민족들의 발전 촉진에 관한 회칙』(Populorum Progressio)(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7) 참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평화는 결코 한번에 영구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꾸준히 이룩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인간의 의지는 나약하고 죄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평화를 이룩하려면 각자의 야욕을 끊임없이 다스리며 정당한 권위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인의 행복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람들이 신뢰로써 정신과 재능의 자산을 서로 나누지 않는다면, 지상에서 이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민족들 그리고 그들의 존엄을 존중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형제애의 성실한 실천이 평화 건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평화는 정의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가는 사랑의 열매도 된다.

지상의 평화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생겨나며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모습이며 결실이다. 강생하신 성자께서는 평화의 임금님으로서 당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한 백성, 한 몸 안에서 모든 사람의 일치를 회복시키셨으며, 당신 육신 안에서 미움을 죽이시고, 부활하시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의 성령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 주었다.”²⁶⁾

국가들 사이에 개재하는 불균형이 지나치면 긴장과 불화가 생기게 마련이며, 마침내는 위기에 몰아넣게 된다. 가톨릭교회가 국가 간의 정의를 요청하는 목적은 결국 인간의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성숙을 도모함으로써 전 인류의 공동선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힘과 힘의 불안한 균형으로 전쟁만 피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고는 할 수 없다. 평화는 하느님이 원하는 질서, 보다 완전한 정의를 인간 사이에 꽃피게 하는 질서인 것이다. 가톨릭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인류에게 있어서 평화는 각 사람의 마음 안에 평화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즉 하느님이 명한 질서를 그 자신 안에서 준수하지 않고서는 확립될 수 없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가혹한 수난과 죽음으로써 반(反)평화의 근원이 되는 죄악을 씻어 없앨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침으로써 전 인류를 하느님과 화해시키는 평화의 과업을 부여받았다고 성서는 말한다. “실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두 편을 하나로 만들고 자신의 몸으로 장벽 곧 적개심을 없애셨으며, 조문들로 된 계명들의 율법을 철폐하셨습니다. ...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도, 또한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도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²⁷⁾ 또 다른 성서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평화를 여러분에게 남겨 두고 갑니다. 내 평화를 여러분에게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²⁸⁾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꿈, 즉 형태가 없는 유토피아(Utopia)라고 생각한다. 평화를 유지하고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평화 건설에는 또한 정의를 실현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참다운 정의의 구현 없이 평화는 오지 않는다.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정상적인 질서가 파괴된 아노미의 한 가운데도, 마치 ‘무덤 속의 고요’[Friedhof]처럼 고요한 공간과 고요한 순간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평

26) 『사목헌장』, 573쪽: “제 78항 - 평화의 본질.”

27) 신약성서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2,14-17.

28) 신약성서 『요한복음』 14,27.

화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일시적 휴전이나 무장 해제나, 폭력과 협박에 기초를 둔 강제적인 질서나, 적대 세력 간의 일시적 균형이나 그 어느 것에도 진정한 평화의 이름을 붙여 줄 수는 없다.²⁹⁾ 그 때문에 평화의 실현은 늘 지난한 문제이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평화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로서, 마를 줄 모르는 평화의 샘을 스스로 간직하고 있으며, ‘우리의 평화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여긴다. 참된 행복 여덟 가지를 말하는 산상수훈(山上垂訓)은 그 일곱 번째로 평화감행에 대한 투신을 꼽고 있다. “복되어라,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지리니.”³⁰⁾

오늘날 인류는 서로 간의 일치를 보다 깊이 의식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디서나 참으로 보다 인간다운 세계를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참된 평화를 찾아서 새로이 회심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성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톨릭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참다운 평화의 뜻을 알아듣고, 진리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자유에 뿌리박힌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의 안에 있는 평화의 실현과 평화 안에 있는 정의의 실현을 위해 공헌해야 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평화로운 질서를 세상 속에 건설하기 위해 전 세계 가톨릭교회에서 ‘평화의 날’을 지내야 한다고 1968년에 교황 바오로 6세가 제안한 이유도 이것이었다.³¹⁾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가톨릭교회는 신자들로 하여금 인간에게 신뢰를 갖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자세는 결국 타인을 공격자요 침입자로 볼 것이 아니라, 더욱 인간다운 세계를 함께 건설하는 데에 공헌할 수 있는 미래의 협조자로 여기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사회영성’(social spirituality)³²⁾을 위한 수덕의 길로 이어져야 한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220여년 뿌리를 내려온 가톨릭교회의 모습은 각각의 세기를 단위로 다른 강조점을 지녀온 것으로 보인다. 첫 백년 19세기는 가톨릭교회가 ‘사회복지’의 종교로, 다음의 백년인 20세기는 ‘사회정의’의 종교로 자리매김해 왔다.³³⁾ 그것은 그동안 한국인의 종교 호감도 조사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나름대로의 명분을 얻고 성공을 거둔 선교정책이었다고 보인다.³⁴⁾ 이제 우리는 새 천년기와 새로운 세기를 동시에 맞이한 희귀한 역사의 전

29) 박종대, 『평화』, 『우리말철학사전』 2(지식산업사, 2002), 331-352쪽 참조.

30) 신약성서 『마태오복음』 5,9.

31) 전 세계 가톨릭교회는 매년 1월 1일을 평화의 날로 제정하여 세계평화의 증진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뜻을 함께 하는 이웃종교인들과의 대화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32) 인류 공동체 안에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수반하는 수행으로서 ‘사회영성’의 개념과 실천적 사례에 대하여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존 디어, 『헨리 나웬. 평화에 이르는 길』(성바오로출판사, 2004), 11. 29-30. 34. 40-41쪽.

33) 박임영 외, 『천주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평가와 전망을 위한 전문가 조사보고서』(한울아카데미, 2004), 273-290쪽 참조.

34) 한겨레신문 2008년 11월 18일자가 보도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신뢰하는 종교기관 중 첫째로 가톨릭교회를 꼽았고, 호감 가는 종교로는 불교를 첫손가락에 꼽았다. 『인터넷 한겨레신

환점에 서있다. 이 시기 여러 분야에서 한 결 같이 예견하는 강조점은 문화와 영성이다. 그러한 예측을 한국의 가톨릭교회에 대입시켜본다면 그것은 바로 현 시대가 이 사회 안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참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정신적인 바탕으로서 ‘사회영성’의 계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가톨릭교회는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의지 표명에는 세상의 참된 평화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결의와 함께, 그를 위한 구체적 실천의 길로서 수행의 자세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³⁵⁾

Ⅲ. 가톨릭교회의 수덕³⁶⁾ - 수행의 전범(典範)인 수도생활

수행 내지 수덕이란 여러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져 있는 도덕 능력으로 인격 형성의 원동력인 덕을 닦는 것”³⁷⁾이다. 덕을 닦아서 나와 이웃을 평안하게 만들고, 국가와 세계 전체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수행의 기본은 모든 종교 전통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다.³⁸⁾ 이와 같은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행과 집중적인 기도가 수반되기도 한다. 가톨릭에서는 수행(修行)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추종(隨行)이라는 수도생활의 형태로 대표된다. “완전한 사랑을 복음적 권고의 실천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느님이신 스승의 가르침과 모범에서 비롯되며, 이는 하늘나라의 탁월한 표지를 보여주는 것”³⁹⁾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고자 하는 수행의 모범인 예수는 하느님 나라의 실현에 전적으로 종사하기 위해 재산과 가정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복종(순명)하였다. 이와 같이 예수는 가난(청빈)과 독신(정결)과 복종(순명)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삶을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따르는 모습은 교회 초창기에만 잠깐 실현되고 말았다. 인간이 지닌 욕심과 자만심이라는 한계 때문에 세상 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이상적

문』, 2008년 11월 18일, 오후 6시 58분 51초 등록기사. http://www.hani.co.kr/popups/print_hani?ksn=322528.

35) 최창무, 『평화 - 하느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과제』, 『가톨릭 신학과 사상』 1(가톨릭대학교, 1989), 6-21쪽; 최만자 외, 『기독교 평화운동: 어디로, 어떻게?』, 『새길 이야기』 9(도서출판 새길, 2003 / 여름), 25-61쪽 참조.

36) 김보록 / 김승혜, 『수덕』, 『한국가톨릭대사전』(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5038-5044쪽; 이종한, 『수도생활』, 『한국가톨릭대사전』(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5062-5071쪽 참조.

37) 김승혜, 『종교학에서의 수덕』, 『한국가톨릭대사전』(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5042쪽.

38) 유교에서 말하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도 결국 이와 같은 수행의 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대한 수행자들이 국가적, 세계적 분쟁의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한 예로, 스위스의 수호성인 Nicholas von Flüe가 14세기말 스위스 연방의 해체위기에 담당하였던 공헌을 스위스인들은 종파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한다. 이제민, 『하느님의 얼굴』(생활성서사, 1998), 112-135쪽 참조.

39) 『수도생활의 쇠신 적응에 관한 교령』,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개정판: 2002), 795쪽: 제1항.

공동체는 쉽게 지속될 수 없었던 것이다.⁴⁰⁾ 예나 이제나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그리스도처럼’(Christic)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⁴¹⁾

이와 같이 인간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은 한계에 대한 경험과 반성에 따라 생겨난 삶의 방식이 바로 수행에만 전적으로 투신하는 그리스도교 수도생활이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철저하게 살기로 작심한 사람들의 삶으로 이러한 수도생활의 전통이 형성되었다. 이들 수도자들은 죄로 기울어지는 나태한 경향을 경계하기 위하여 ‘포기와 고행’(renuntiatio et mortificatio)으로 스스로를 다잡아 나아갔던 것이다. 그래서 가톨릭 수도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하기 위한 청빈과 정결, 그리고 순명을 복음적 권고라고 했으며, 수도서원을 통해 이 3가지를 평생 지킬 것을 선서하였다. “수도자들은 참 행복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도 없고 하느님께 봉헌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자기 신분으로 빛나는 뛰어난 증거를 보여주며”,⁴²⁾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천상 보화를 모든 신자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얻은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증거를 드러내며, 미래의 부활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고하여 준다.”⁴³⁾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가톨릭교회의 수덕을 대표하는 전범(典範)으로서 수도생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넓은 의미에서의 수행은 예수와 그의 직제자들의 시대에도 이미 있었다고 하겠으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수도생활은 기원 후 300년을 전후하여 시작되었다. 열렬한 신자들은 유혹이 많은 세속도시를 떠나 사막과 광야에 은거하며 사회와 분리되어 전혀 다른 특수한 생활양식을 개척하였다. 특히 이집트의 은수자 혹은 독수자(隱修者 / 獨修者 eremita, anachoreta)들이 다른 지방의 수행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은수자 안토니오(Antonius, Eremitus, 251-356)는 이집트 수도승들의 아버지이며, 가톨릭 수도생활의 시조(始祖)로 알려졌다. 당시 수행의 방식은 고행(mortificatio) 혹은 극기(mortificatio sui ipsius)이었다. 그들은 단식과 철야기도 및 육체노동으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입증하고, 예수의 모범에 따라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이들 초기 수행자들을 거주방식에 따라 나누어보면, 외딴 곳에 혼자 사는 은수자와, 함께 모여 사는 공주 수도자 혹은 회수자(共住修道者 / 會修者 coenobita), 그리고 서로 가까이 사는 반-은수자(半隱修者 semi-eremita) 등이 있었다. 이집트 수행자들의 공주(共住) 생활을 조직하고, 최초의 수도규칙서를 쓴 인물은 파코미오(Pachomius, 292-346)였다. 아타나시오(Atanasius 295-373)가 수행자들의 본보기로 알려진『안토니오의 생애』(Vita Antonii)를 저술하여 수도생활을 교회에 소개한 이후 이러한 생활방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40) 신약성서『사도행전』 4,34-6,1 참조.

41) 박일영, 앞의 책(2008), 21쪽 참조.

42)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개정판: 2002)[이하: 『교회헌장』], 229쪽: 제31항.

43) 『교회헌장』, 269쪽: 제44항.

수도자들을 위한 생활 지침 가운데 이탈리아 누르시아 지방 출신의 베네딕토(Benedictus 480-547)가 저술한 규칙서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베네딕토의 수도규칙서를 지키는 수도원이 점차 늘어나, 서기 800년 이후 가톨릭 수도자들은 오래 정주(定住)를 약속하게 되었다. 이들은 비교적 큰 규모의 공동체를 이루고, 일생 동안 같은 수도원에 머무르면서, 자급자족을 하며, 공동으로 수행을 하는 일에 치중하였다. 수행자들은 떠나갔던 세속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도원의 담과 규칙서라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는 방법을 개발한 셈이다. 중세 사회의 소용돌이치는 변화에 따라 수도원들이 자연스레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가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정치적 세력으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13세기 초에 이탈리아인 도미니코(Dominicus 1170-1221)와 아씨시의 프란치스코(Franciscus Assisiensis 1182-1226)의 등장으로 아주 새로운 수도생활의 형태가 생겨났다. 이들은 부유하고 비대해진 수도원의 생활방식이 복음의 정신에 따른 수행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여겨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새로운 유형의 수행자들은 무소유를 원칙으로 하여, 친환경적이고 민중에 밀착한 삶을 영위하였다. 이들은 직접적인 육체노동과 경우에 따라서는 탁발(托鉢)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소단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자주 이동하면서 대중설교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외딴 곳보다 도시 한 가운데 살면서 민중들에 대한 교화에도 힘썼다.

그 뒤 1534년에 스페인 로올라의 이냐시오(Ignatius de Loyola 1491-1556)가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수도생활의 양식을 구상하였다. 그가 설립한 예수회는 교회를 위한 봉사단으로서, 속세에 파고 들어가 가장 위급하게 여기는 일들을 맡아서 처리하였다. 당시 종교개혁의 와중에 가톨릭교회를 내적으로 쇄신하고, 학문 연구와 고등교육이라는 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것이다. 즉 세상 속 선교활동을 통하여 예수와 일치를 이루어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 후에 생긴 수도회들도 예수회의 영향을 받아 교회와 세상에 대한 봉사를 우선 순위로 삼았다.

반면 더욱 철저하고 엄격하게 고행과 극기를 실천하는 전통적인 수행방법을 고수하는 가르멜회도 여전히 번성하였다. 이들 중에서 더욱 철저한 가난을 주장하고 맨발의 수행을 내세운 아빌라의 대 테레사(Theresa de Avila 1515~1582), 아라비아의 신비주의와 접목을 시도한 십자가의 요한(Joannes a Cruce 1542~1591), 일상의 작은 일을 통하여 완덕의 길에 나아가고자 한 프랑스 리지외(Lisieux) 출신의 소화(小花) 테레사(Theresa of little flower 1873~1897)와 같은 걸출한 수행자들이 배출되었다. 20세기에는 샤를르 드 푸코(Charles de Foucauld 1858~1917)의 규칙에 따라 빈민들과 함께 사회 한복판에서 살고, 기도하고, 노동하면서 관상(觀想)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 여기 “사람 서리에서”⁴⁴⁾ 보여주하고자 하는 예수의 작은 형제회와 예수의 작은 자매회가 탄생하였다.

44) 러네 보아욤, 강우일 역, 『사람 서리에서. 샤를르 드 푸코 신부와 예수의 작은 형제들』(왜관: 분도출판사), 1995 참조.

현대에는 수도자라는 신분과 명칭을 거부하고 일반 사회인으로서 복음적 권고를 지키며 수행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들의 집단을 재속회(在俗會 Secular Institute)라고 한다.⁴⁵⁾ 이것으로 가톨릭 수행의 역사가 한 바퀴를 돌고 초대 교회의 금욕자(禁慾者 asceticus)처럼 속세를 떠나지 않는 수행자의 모습을 다시 보여 주게 되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 내에서 이들의 생활은 다른 수도회와 같이 교황청의 ‘봉헌생활회와사도생활단성(약칭: 수도회성)’의 감독을 받고 있다.⁴⁶⁾

한국 가톨릭교회 창립 시기부터 신자들 가운데는 독실한 생활과 고행을 하면서 교회를 위한 봉사에 전념한 인물들이 있었다. 이들은 1776년부터 경기도 여주 주어사(走魚寺)에 모여 천주교 서적을 읽고 토론하는 강학회(講學會)를 거치면서 단순히 학술적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돈독한 신앙 활동과 수행에 정진함으로써 한국 천주교회의 주춧돌을 놓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로는 권철신(1736-1801), 이벽(1754-1786), 정약전(1758-1816) 등이 있다. 이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회장(會長 catechist)으로 이웃을 위한 교화와 봉사에 힘쓰다 목숨까지 바친 강완숙(1760-1801)은 한국 가톨릭의 초기 여성 지도자이며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인습 때문에 외형상으로 형식적인 결혼을 하고도 순교하기까지 4년여 동안 동정을 지켰던 유중철(1779-1801), 이순이(1781-1802) 동정 부부 같은 이들을 대표적인 초기 수행자들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창립 직후 곧바로 이어진 100여 년 간의 박해시대에는 본격적이고 조직적인 수행이나 수도생활이 불가능하였다.

1886년 한불조약이 체결되어 신앙의 자유를 얻은 후, 1888년에야 비로소 최초의 가톨릭 수도회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당시 프랑스에서 한국에 진출한 샤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서 자선활동과 사회복지에 힘썼으며, 이후에는 교육과 신앙생활 돌보기에도 종사하였다. 남자 수도회로서 최초로 한국에 진출한 수도회는 교회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성 베네딕토회였다. 1909년 독일의 상트 오틸리엔(St. Ottilien)에서 온 베네딕토 회원들은 당시 조선교구장이었던 뮈텔(G. Mutel 1854-1933) 주교의 요청에 따라 서울에서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에 못 이겨 학교 운영을 그만둔 다음 북한의 넓은 포교지역을 맡아서 함경남도 덕원으로 옮겼다.⁴⁷⁾ 해방 후 베네딕토회는 경상북도 왜관에 자리를 잡고, 출판과 영성의 분야에서 그 고유 사명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밖에 광복 전에 한국에 들어온 수도회는 평안도 의주에 온 메리놀 외방전교회와 메리놀 수녀회(1924년), 함경도 원산에 온 포교 성베네딕토 수녀회(1925년), 대전에 온 프란치스코회(1937년), 그리고 한국에 처음으로 관상수도원을 세운 가르멜

45) 김순자, 『성 마리아 재속회의 재속봉헌생활에 대한 고찰』, 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2008 참조.

46) 교황청의 기구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토마스 리스, 이경상 역, 『인사이드 바티칸』(가톨릭출판사, 2004), 203쪽.

47) N. 베버, 박일영/장정란 역주,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왜관: 분도출판사), 2009(근간); 왜관수도원 편, 『옛 등걸에 새 순이』(왜관: 분도출판사), 1985, 158-234쪽 참조.

여자수도회(1939년) 등이다.

이 무렵에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방인(邦人) 수도회들이 탄생하기 시작하였다. 즉 1932년 평양에서는 메리놀회의 도움으로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가 창설되었다. 1935년부터 영남 지방에서는 훗날 포항 예수성심시녀회가 될 동정녀들의 작은 모임이 시작되었다. 방인수녀회들의 창립은 광복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1953년에는 방유룡(1900-1986) 신부가 한국순교복자회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남자 방인 수도회를 세웠다. 한국전쟁 이후에 가톨릭 교회의 발전이 세계의 주목을 끌기 시작하자 많은 남녀 수도회가 한국에 진출하였다. 1960년대에 서강대학교를 세운 예수회와 성심여대를 세운 예수성심수녀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방인 수도단체라도 대체로 서구의 수도생활을 모방하고 있으니, 한국인 고유의 영성을 계발하여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수행의 토착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⁴⁸⁾

IV. 결론: 평화실현을 위한 사회영성의 계발

이상에 살펴본 대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가톨릭의 수행 혹은 수도생활을 보면 공통적인 요소들이 드러난다. 그것은 어떤 형태의 수행이든 회심 → 조명 → 순례 → 합일 → 쇄신의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계기에 깊은 회심과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조명의 체험이 먼저 있고나면, 뒤이어 실제적으로 성지를 순례하거나 마음으로 내적인 순례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달한 후, 하느님의 평화를 세상에 실현하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의 쇄신에 투신했다는 것이다.⁴⁹⁾

가톨릭의 수행은 한 마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의 길을 따라 그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예수는 왜 그런 비참한 죽음을 굳이 자초하였고, 다시 부활하였던가? 그것은 앞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이 세상에 평화를, 하느님의 나라라고 표현되는 참된 평화를 가져오려는 목적이었다. 이와 같은 목적의식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영성’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⁵⁰⁾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한국 사회는 가톨릭으로 하여금 정신적, 영적인 영역에서 종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요구를 필자는 한국 가톨릭이 한국 사회 안에서 지난 220년간 이어온 ‘사회복지-사회정의’의 전통을 계승하는 ‘사회영성’에 대한 요구라고 해석하고자 하였다.⁵¹⁾

48) 이병호, 『한국 교회 영성의 토착화 전망』, 『사목』118(한국사목연구소, 1988. 7); 이윤남, 『2000년대 토착화 연구의 전망-영성 분야』, 『사목』251(한국사목연구소, 1999. 12) 참조.

49) 김승혜, 앞의 책(2005), 54쪽.

50) 존 디어, 앞의 책, 40-41쪽 참조.

51) 박일영 외, 앞의 책(2004), 273-290쪽 참조.

한국의 가톨릭 신자에게서 실현되었던 그 한 역사적 사례를 우리는 안중근(1879-1910)에게서 볼 수 있다. 안중근이 신문에 기고한 글,⁵²⁾ 일본인 관헌에게 준 글,⁵³⁾ 뫼텔 주교·빌렘 신부·어머니·아내·아우들에게 쓴 유언들⁵⁴⁾에 나타나는 내용은 한결 같이 그리스도교 덕목의 실천(수행)으로 태평세계를 이루자는 평화실현의 호소를 담고 있다.⁵⁵⁾ 심지어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을 저술할 시간을 확보하는 대신, 이토 히로부미의 사살과 관련한 재판의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⁵⁶⁾

문명 간 충돌이나 민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학살, 테러, 인종 청소 등 비극적이고 야만적인 행태들도 그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대부분이 종교의 이름이다. 이러한 불행한 모습들이야말로 세계문화의 평화적 진전에 종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반증적(反證的) 사례들이다. 뒤집어 말하면, 새 천년기의 21세기에도 종교는 여전히 인류의 정신적 기조를 이룰 뿐 아니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간에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한국과 세계의 가톨릭교회가 이러한 시기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참된 평화를 위하여 사회영성을 개발하는 수행에 박차를 가하게 될 때, 왜곡되고 악용되는 종교가 아니라,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종교 간의 만남을 통한 종교 간의 평화가 실제로 중요함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⁵⁷⁾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수행으로서의 신앙 실천은 종교교육 및 영성훈련을 통한 평화교육에도 즉각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⁵⁸⁾

52) 안중근, 『인심을 결합하여 국권을 회복하자』, 『海朝新聞』, 블라디보스톡: 1908년 3월 21일자, 신용하 엮음, 『안중근 유고집』(역민사, 1995), 309쪽.

53) 안중근, 『한국인 안용칠이 느낀 바』, 같은 책, 312-313쪽.

54) 같은 책, 314-323쪽 참조.

55) 황종렬, 『신앙과 민족의식이 만날 때. 안중근 토마스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관한 신학적 응답』(왜관: 분도출판사), 2000, 115-133쪽 참조: “신앙과 민족의식의 창조적인 통합 주제. 한국 가톨릭 그리스도인.”

56) 신성국, 『義士 안중근』(청주: 도서출판 지평), 1999, 159-161쪽.

57) 만해사상실천선양회 편, 『세계평화와 종교화합』, 국제학술대회 논문집(2006 세계종교지도자대회, 2006) 참조; 한스 쾰, 앞의 책(1993)도 참조.

58)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문명의 전환과 종교의 새로운 비전』, 종교 간의 대화 30주년 기념 대화 모임 자료집(아카데미하우스, 1995) 참조.

참고문헌

- 『공동번역 성서』, 대한성서공회, 27판: 1982(초판: 1977).
- 교황 바오로 6세, 김남수 역, 『민족들의 발전 촉진에 관한 회칙』(Populorum Progressio),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7.
- 교황 요한 23세, 정규만 역,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3.
- 김보록 / 김승혜, 「수덕」, 『한국가톨릭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5038-5044쪽.
- 김순자, 「성 마리아 재속회의 재속봉헌생활에 대한 고찰」, 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2008.
- 김승혜 외,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수행』, 바오로딸출판사, 2005.
- 니터, 폴, 유정원 역, 『종교신학입문』, 왜관: 분도출판사, 2007.
- 디어, 존, 『헨리 나웬. 평화에 이르는 길』, 성바오로출판사, 2004.
- 리스, 토마스, 이경상 역, 『인사이드 바티칸』, 가톨릭출판사, 2004.
-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세계평화와 종교화합』, 2006 세계종교지도자대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06.
- 박노자, 「파시즘의 뿌리는 너무나 깊다」, 『한겨레 21』475(한겨레신문사, 2003. 9. 18), 113-114쪽.
- 박무익 외,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한국 꺄립, 1984; 1989; 1997; 2005.
- 박일영, 『한국 무교의 이해』, 종교학 총서 9, 왜관: 분도출판사, 재판: 2003(초판: 1999).
- 박일영, 『한국의 종교와 현대의 선교』, 가톨릭출판사, 2008.
- 박일영 외, 『종교와 영성』, 강남대학교 출판부, 1998.
- 박일영 외, 『전통사상과 생명』, 국학자료원, 2003.
- 박일영 외, 『천주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평가와 전망을 위한 전문가 조사보고서』, 한올아카데미, 2004.
- 박종대, 「평화」, 『우리말철학사전』, 제2권, 지식산업사, 2002, 331-352쪽.
- 베버, N, 박일영 / 장정란 역주,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왜관: 분도출판사, 2009(근간).
- 보아옴, 러네, 강우일 역, 『사람 서리에서. 샤를르 드 푸코 신부와 예수의 작은 형제들』, 왜관: 분도출판사, 1995.
- 신성국, 『義士 안중근』, 청주: 도서출판 지평, 1999.
- 신용하 엮음, 『안중근 유고집』, 역민사, 1995.
- 왜관수도원 편, 『옛 등걸에 새 순이』, 왜관: 분도출판사, 1985.
- 유정원, 『종교신학의 이해』, 신학총서 32, 왜관: 분도출판사, 1996.
- 윤이흠, 「세계문화사의 맥락에 비추어 본 한국의 종교와 문화」, 『종교와 문화』 1(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5), 37-57쪽.
- 이병호, 「한국 교회 영성의 토착화 전망」, 『사목』118(한국사목연구소, 1988. 7).
- 이유남, 「2000년대 토착화 연구의 전망—영성 분야」, 『사목』251(한국사목연구소, 1999. 12).
- 이제민, 『하느님의 얼굴』, 생활성서사, 1998.
- 이종한, 「수도생활」, 『한국가톨릭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5062-5071쪽.
-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개정판: 2002.
- 조규만, 『하느님 나라』,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5.

- 최만자 외, 「기독교 평화운동: 어디로, 어떻게?」, 『새길 이야기』 9, 도서출판 새길, 2003 / 여름, 25-61쪽.
- 최창무, 「평화—하느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과제」, 『가톨릭 신학과 사상』 1(가톨릭대학교, 1989), 6-21쪽.
- 퀸, 한스, 안명옥 역, 『세계윤리구상』, 왜관: 분도출판사, 1992.
-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문명의 전환과 종교의 새로운 비전』, 종교간의 대화 30주년 기념 대화모임 자료집, 아카데미 하우스, 1995.
- 프리들리, R., 『현대의 선교. 선교인가 반선교인가』, 성바오로출판사, 1989.
- 프리들리, R., 「새로운 천년과 유럽에서의 평화—종교들의 역할」,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제 3회 국제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0, 7-61쪽.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문명충돌의 위기와 종교』, 심포지엄 자료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종로 성당, 2001.
- 황종렬, 『신앙과 민족의식이 만날 때. 안중근 토마스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관한 신학적 응답』, 왜관: 분도출판사, 2000.
- Berger, Peter, *La Religion dans la Conscience Moderne*, Paris, 1971.
- Bowen, John, *Religions in Practice*, Allyn & Bacon, 1998.
- Friedli, R., *Frieden Wagen. Ein Beitrag der Religionen zur Gewaltanalyse und zur Friedensarbeit*, Freiburg / Schweiz, 1981.
- Haynes, Jeff, *Religion in Global Politics*, London & New York: Longman, 1998.
- Huntington, Samuel, *The Clash of Civilizations*, New York, 1996.
- James, W.,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Nature*, Penguin Books, 1982(초판: 1902)(김재영 역,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한길사, 2000).
- Kristensen, W.B., *The Meaning of Religion*,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1.
- Küng, Hans / Kuschel, Karl-Josef, *Erklärung zum Weltethos. Die Deklaration des Parlamentes der Religionen*, München-Zürich, 1993.
- Russell, Elbert W., “Christentum und Militarismus”, in: *Studien zur Friedensforschung*. Bd. 13, hg. v. W. Huber / G. Liedke, Stuttgart / München, 1974, p.p. 21-33.
- Taylor, Mark C., *Critical Terms for Religious Studies*,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원고접수: 2008년 11월 28일 1차심사: 12월 3일 게재승인일: 12월 10일

연구자 소개: 박일영

① 전공: 종교학

② 관심영역: 샤머니즘과 그리스도교의 비교연구

③ 주요논저: 한국의 종교와 현대의 선교(2008) / 한국 무교와 그리스도교(2003) / 한국 무교의 이해(1999)

④ E-mail: onezero@catholic.ac.kr

Abstract

**The Role of Religions for Peace Realization
– Focused on the Ascetic Practice of Catholicism –**

Park, Ilyo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is very important transition period for Korea domestically and externally. In this time and in this society the role of religions for the peace realization has relatively big importance more and more. Especially Catholicism has the role of peace-maker in ad-hoc society of crisis. It is necessary to dig out academically such kind of religious task.

Catholicism operates the mission of peace realization which Korean society inevitably needs. With the awareness about that context I want to find out the role and meaning of ascetic practice of Catholicism from the viewpoint of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This kind of work has enormous efficiency for the realization of peace in a society with religious pluralism like Korea.

If we match the role of Catholicism as preserver of social spirituality and at the same time as realizer of peace in the national community, we could find out the root of hope about peace-realization, expecting in the context of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The re-discovery of such basis would present the frame or paradigm for religious peace education that reconfirms the cultural tradition in human society where human beings manage their life with fellow living creatures.

Key words : peace, asceticism, ascetic practice, social spirituality, Catholic peace education